

승가교육의 전망*

— 운문사 승가대학을 중심으로 —

원법스님(권동순)**

1. 시작하며
2. 운문사 승가대학 현황
3. 운문사 승가대학 개선안
 - 1)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수행환경
 - 2) 중체기용(從體起用)의 교육과정
4. 나오며

■ 한글요약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등에서는 교육개혁 불사와 관련하여 승가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각도의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여왔다. 출가자수의 감소, 현대의 승가상, 출가자상, 그에 따른 교육 불사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그 개선안에 대해 운문사 승가대학을 중심으로 살펴해보았다. 운문사 승가대학은 un력 감소, 자발적 조행표(調行表)를 통한 습의 등 수행환경이 변화되었다. 이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을 바탕으로 한 수행환경의 변화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기존 교육체계인 한문위주의 교육에서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필

* 이 논문은 2019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주최 전문연구자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아사리, 운문사 승가대학 교수

수와 선택 등 34과목을 이수하는 학점제로 교육과정도 변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수렴하고 그 개선안으로써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역경 팀 운영과 전폭적인 지지, 학위위주가 아닌 문리를 터득한 승가지성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불교개론서 편찬과 『범망정보살계본』 과 더불어 사미니, 비구니계본을 독송하는 것이 청정승가를 통한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학인시절에 선방에서 실참할 수 있는 기회부여와 호스피스 등 사회봉사활동을 학제에 편입시키는 등의 종체기용(從體起用)의 교육과정을 통한 승가교육을 그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교육개혁불사, 운문사 승가대학, 온고지신, 종체기용, 조행표.

1. 시작하며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가교육의 검색 창에 보이는 교육지표는 계·정·혜 삼학의 구족, 선종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제종의 가르침 포괄, 자비를 구현하는 불교,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불교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목표를 열 가지¹⁾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성취하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등에서는 교육개혁 불사와

1) 대한불교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의 교육목표에는 조계종지의 체득, 초기경전·대승경전을 망라한 체계적 경전교육, 교학의 이해, 수행전법을 함께 하는 교육, 율장의 학습 및 수련, 불교 사상사와 조계종 종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종의 종지 학습, 선 및 염불의 실수, 역사와 사회의 문제점을 불교적 시각과 방법으로 조명하고 해결하는 교육, 수행자로서 필요한 일반교양과정의 이수로 설정되어 있다.

관련하여 승가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각도의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여왔다.

특히 2018년 교육 정책 세미나에서 교육부장 진광스님이 발제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조계종 승가교육 개선방안’에서는 승가교육의 핵심 과제를 불교 기본교리의 이해와 심화, 교육방법의 개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고려라는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²⁾ 그리고 교육환경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다섯 가지로 정리³⁾하였다. 1994년 종단개혁이후 승가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승가교육 개혁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주된 논점은 강원은 수행도량이며 학인은 수행자라는 대학교육무용론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입장과 승가교육은 퇴보했다는 현대적인 불교교육의 수용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입장의 차이로 정리할 수 있다.”⁴⁾ 지난 10년간의 교육개

2) 진광(2019), 9-39.

3) <출가자 급감에 따라 기본교육기관 기관 수 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예시함>

- ① 사찰승가대학을 적정 수로 조정(현행 14개를 6개 내외의 교육기관으로 조정)하는 방안
 - 사미 사찰승가대학 4개 내외, 사미니 사찰승가대학 2개 내외로 조정
- ② 동국대 불교학부(서울, 경주)에 대한 기본교육기관 인정 여부
 - 일반 학생과 같이 수학하는 문제
 - 개설된 과목이 구축계를 수지하기 위한 교과과정으로의 적정성 문제
 - 기본교육을 중복 이수하는 문제 방지
 - 동국대는 대학원 수학과정으로 재조정 필요성
- ③ 중앙승가대학교만 기본교육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
 - 사찰 승가대학, 기본선원, 동국대 불교학부는 기본교육과정에서 제외함
 - 출가자 감소로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출가자 전원 수용 가능함
- ④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의 법인을 통합하여 ‘동국대 중앙승가대학 캠퍼스’를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
- ⑤ 기본선원을 선 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립 전문교육기관(2년)으로 전환하는 방안
 - 구축계 수지자 입방

혁 불사는 진보적인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각 승가대학은 기본 교육기관이다. 이미 현대의 승가상, 출가자상, 그에 따른 교육 불사에 대한 밑그림은 많은 논의를 통해 충분히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주어진 과제는 승가교육에 대하여 다양하게 제시된 담론과 지난 10여 년간의 개혁불사를 통해 나타난 현상들을 현실에서 어떻게 재구성하여 시대에 걸 맞는 옷을 입히는 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제반 교육현황 가운데 운문사 승가대학을 중심으로 수행환경과 교육내용에 한정하여 그 현황과 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한다.⁵⁾

2. 운문사 승가대학 현황⁶⁾

논자는 1993년 행자교육 4기생으로 1995년부터 98년까지 강원을 다녔는데 당시는 260여명의 대중이 살았다. 물물(物物)이 각득기소(各得其所)하는 화합 승가를 우선으로 하여 자급자족의 생활을 운력으로 꾸렸다. 평균 연령은 25~30세였고 많아야 40대 초반이었다. 한철에 한번 혹은 두 번씩 후원에서 채공과 공양주 소임을 살았고 각 반 별

4) 장익(2010), 114.

5) 2019년 6월 21일 해인사에서 개최된 불교학연구회에서 주최한 승가교육과 관련하여 현 승가대학의 제반 현황과 문제점, 그 전망에 대해 상주교수스님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고는 운문사 승가대학 은광스님이 발제한 「운문사 승가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회고와 전망」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밝혀둔다. 당시 발제문은 운문사 교수스님들의 사전토의를 종합하였기 때문이다.

6) 여기에서는 교육개혁불사 이전 40여 년간 전통강원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시기에, 특히 가장 학인수가 많았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절에 강원을 다녔고 또 교육개혁불사 시작점에서 현재까지 승가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환경과 교육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로 소임이 정해져 있었으며 하루를 운력 없이 지내는 날은 삭발목욕 일 뿐이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유교의 경전인 사서(四書)를 비롯하여 서예, 꽃꽂이, 피아노, 일본어, 요가 등 대승보살로서의 정서 함양을 위해 다양한 학문과 기예를 익혔다. 큰스님들을 초청해 법문 듣는 시간을 한 철에 한 두 번은 가졌으며 특강을 통해 집중강의도 들었다.

운문사 승가대학은 많은 학인대중이 함께 생활하기에 학훈인 입지 발원(立志發願), 정진불퇴(精進不退), 유통교해(流通教海)와 더불어 육화(六和)를 중시하였다. 댛돌에 고무신이 1센티라도 어긋나면 그 댛돌의 신발주인은 모두 경책을 받았고 대중치기 전까지 빨래터에 빨래가 있으면 반 모두 경책이었기에 나만 살피기보다 옆 사람 신발부터, 빨래부터 챙겼다. 큰방에 1·2학년 120여명의 스님들이 일사불란하게 함께 자고 먹고 생활하였다. 보름에 한번 쉬는 날이면 ‘산에 살면서 또 산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어른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도반들이랑 산으로 산으로 향하였다. 상하반과 각반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탁구대회, 족구대회 등을 개최하여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도 가졌다.

수업시간은 대체적으로 조선시대 이력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문으로 된 경전과 어록을 배웠다. 불교에 문외한이어서 교리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한문은 부담 그 자체였다. 무조건 외우고 그날 배운 내용을 새기고 행상을 정리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라 여기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문에 대한 도외시를 겪고 출가한 당시의 학인들은 대부분 번역서에 의존하였으나 내용이해가 더 불가하였다. 단순히 한문을 번역해 놓았을 뿐 번역한 사람도 내용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갈증이 심했다. 자신의 안목으로 불전을 보고 싶다는 열망을 키우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강원을 졸업하고 난 10년 뒤 교육개혁불사가 시작점에 있었던 시기에 다시 운문사 승가대학에 들어왔다. 발우공양, 새벽예불, 상강례, 자자 등 승가대학의 일상은 다시 익혀야 할 필요가 없었다. 전통이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놀라움과 이를 통한 후배 학인스님들과의 소통, 유대감 등이 쉽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었다. 학인수가 줄어들었고 교수스님보다 나이 많은 사미니가 각 학년에 있을 만큼 학인들의 평균 연령이 높았다. 운력이 많아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육체적 노동을 하기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니며, 승가대학이라는 일반대학 체제에서 공부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왜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 하는지? 라고 말한다. 치료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한다고 자자주 산문(山門)을 나선다. 한문이 어렵다고, 서당식 교육이 효율적인지 등등에 대해 노골적인 아우성을 보인다. 불만 없는 시대는 없었지만 2000년대 출가자들은 특히 자신의 잣대로 분석하고 헤아리고 저울질하는 이분법적인 시선으로 불교를, 조계종의 수행법을 재단하고 있음을 느끼는 날들이다.

현재 운문사 학인 수는 87명이다. 7) 2년 전만 해도 후원소임을 학인들이 살았지만 이제는 보살님들이 맡아서 하고 채전 받은 당시의 1/3 수준으로 줄었으며 2학년이 밭에 나가서 운력 할 수 있는 인원은 고작 반장 부반장 등 2~3명에 불과하다. 김장배추도 이제는 절인 배추를 사와서 김장을 담그기 때문에 밤새 배추절임을 하던 운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 봄이면 자색에, 여름이면 감잎차에, 가을이면 도토리즙기 운력에, 겨울이면 김자반, 강정 운력 등으로 늘 분주하였지만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없다. 8) 운력 인원도 줄었거니와 농사일이나 김매

7) 2019학년도 2학기 운문사승가대학 학인 현황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21명	19명	26명	21명

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라서 그렇기도 하다. 여전히 1~2학년 스님들이 같이 생활하고 잠도 같이 자는데 이를 많이 불편해 한다. 각 방 생활을 해온 이들이라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지금 시대를 산 사람들에게 과거의 수행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문화적 현상을 거슬러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개인주의화된 이들을 무너뜨리는 시간보다 이런 생활 문화에서 살아온 세대들에 맞는 교육을 만들어 수행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각방 생활은 여러모로 갖 출가한 이들에게는 위험한 공간이다. 다행인 것은 260명이 잦던 청풍료 큰방이 이제는 40~50여명이 생활한다는 것이다. 이제 산으로 산으로 가던 학인들은 이제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병원으로 병원으로 향한다. 반 경책은 고사하고 개인 경책도 입승이나 상반스님들은 의논을 하여 조심스럽게 하고, 또 각자 경책을 주는 상황이 되었다. 승가대학의 수행환경이 이렇게 변화하였다.

3. 운문사 승가대학 개선안

1)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수행환경⁹⁾

- 8) 운문사 용상방의 소임을 보면 학장, 학감, 강사, 중강, 장주, 병법, 지전, 다각, 시자, 간당, 종두, 정통, 화대, 자색, 원두, 조병, 공사, 채두, 미감, 지객, 별좌, 원주, 찰중, 입승, 서기, 회계, 도감, 재무, 교무, 총무, 주지, 회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학년별 소임을 보면, 1학년은 자색, 2학년은 원두, 3학년은 조병이며, 채두와 공사는 대중일동의 소임이다.
- 9)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사전적 의미는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것을 안다는 뜻으로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이다.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부터 내려오는 바람직한 전통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등 전통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을 지양 할 때 흔히 온고지신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한다. 현재 승가대학의 수행환경은 학인수의 감소

① 조행표를 통한 자기 성찰

운문사 승가대학은 조행표(調行表)가 각 학년의 큰방에 붙어 있다. 경책표인 셈이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또 어떤 경우는 만스님들이, 혹은 상반스님이 경책을 주면 조행표에 표시를 하고 자자(自恣)를 통해 입승스님이 발표를 한다. 한 항 당 5번 이상 경책을 받으면 5박 6일 동안 후원 소임을 살게 된다. 이는 교육원에서 제시한 학인들의 일상수행평가표에 준하는 것이다.¹⁰⁾ 교육원에서는 점수로 환산하고 학점을 부여한다. 운문사 조행표는 운문사 학인들의 일상수행에 어울리도록 세분화하고 소임을 통해 참회의 시간을 갖게 한다. 초발심자경문의 현실적용인 셈이다. 이는 학인스님들의 자기점검에 대하여 이전 다소의 수직적 강제성이 약간의 자율성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작지만 큰 변화라 할 수 있다.¹¹⁾

나 문화의 급변으로 인한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기임이 분명하다. 승가교육 개혁불사 또한 온고지신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10) 운문사 조행표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일상수행 평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문사 조행표	일상 수행 평가표	평가 점수
예식	조석예불	20
공양	공양습의	20
입선	소임	20
운력	포살법회	10
출타	운력	10
세의	보살행	10
작성	대중화합	10
논쟁		
보행		
고성		

11) 유승무(2016) 54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불학연구소의 <행자생활실태 파악과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의 조사결과를 보면 퇴사를 생각한 사 람들 중 57%가 ‘불합리한 명령이나 강압적 분위기’를 그 원인으로

② 윤력이 곧 수행임을 자각시키기

도반스님 상좌가 행자교육을 마치고 사미니계를 받고 와서 인사하자마자 하는 말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하는 것이 힘이 드니 앞으로는 출가 전 자기가 마련해 놓은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겠다.’고 했다. ‘행자시절에는 성실히 잘 살았는데 행자교육에서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나마 든 중물도 빼어버리는지’라고 도반이 한숨 쉰다.

한 개인의 황당한 생각이라고 외면하기에는 뭔가 불편하다. 지금 처음 발심한 출가자들에게 불법의 요체와 수행체계를 제대로 일러주고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필요로 한다.

학인들은 왕왕 자유롭게 위해 출가하였는데 정작 시분(時分)을 다투는 일과와 신구의(身口意) 단속에 대한 경책이 구속이라고 여기며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또 출가하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다는 꿈이 행자시절부터 산산이 부서진다고 한다. 수행자는 수행에 몰두해야 하고 여러 가지 노동은 이 시대에는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왜 육체적 노동만을 수행으로 보는가? 빨래는 세탁기가, 풀은 예초기나 풀악을, 떡거리는 사서먹고 설거지는 기계가 하면 된다는 것이 지금 학인들의 생각이다. 인터넷 등 자신들의 살아온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제공이나 사찰의 홈페이지 관리 등은 수행에 포함되지 않는가? 등등에 대해 의문스러워 한다.

결국 현재 학인들은 문명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외면하고 고전적 수행법인 밭일이나 도량 가꾸기, 후원소임이나 은사스님 시봉 등 노동

뽑았다”고 한다. 행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지이지만 학인스님들의 고민도 같은 성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부분 상쇄되고 있음을 조행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력 제공 위주의 수행법만이 진정 참다운 수행인가? 전통적인 수행법은 분명 그 시대의 산물일진대 그렇다면 현 시대에 맞는 방편으로 수행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으로 회의를 많이 갖는다. 승가교육 혹은 승가 수행풍토가 공감하고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현 운문사 승가대학에서는 노트북을 정해진 시간에 내전과 관련하여 사용을 허락해주고 대형 세탁기를 들여놓아 사용료를 내고 사용료는 학인비로 책정하였다. 후원문제는 별좌나 원주는 학인이 맡고 후원 보살님들이 쉬는 날 공양주를 학인으로 대체하는 체제를 병행하고 있다. 보름에 한번 쉬는 날을 일주일에 한번 쉬게 하여 병원을 갈 수 있게 하는 등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도량 김매기나 많은 발운력은 자원봉사자나 인근 마을 주민을 사서 하게 하는 등 학인스님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학인들의 요구와 체력 등을 살피고 있다. 노동이라 표현할 수 있는 일은 현 시대의 출가자에게는 수행법으로 안착되기가 어려운 듯하다. 그러나 배우기를 ‘한가해지면 분별 망상 등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우리 승가에는 절 수행이 있다. 운문사는 매일 아침 예불 후 대중 모두 108배를 한다. 이제 4학년 스님들은 몸이 힘들면 가서 절을 한다고 할 만큼 절 기도가 갖고 있는 힘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승가대학 표준 교육과정의 일상수행과정으로도 108참회가 들어있다.¹²⁾ 주장하는 바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입선 시간 외 일정정도의 절 수행을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발우 퍼기 전이나 기침(起寢)이나 소동시간 전에 약간의 좌선시간을 갖는 것과 함께 일상에서 정동(靜

12) 표준교육과정의 일상수행과정은 불교의식에 조석예불, 사시불공, 법회, 불사를, 수행실수로는 염불의례, 좌선, 108배, 경전합송, 포살(범망경/승가생활계본)을, 대중습의로는 사중소임, 대중운력, 발우공양, 각종습의를 설정하고 있다.

動) 공부를 모두 하는 셈이 될 것이다.

변화를 주는 가운데서도 원론적인 물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서는 좌선과 행선을 겸하셨다. 부처님 당신도 항상 탁발을 다니셨고 ‘한곳에 머물지 말라’하시며 유행하셨다. 모두 살아가기 위한 삶 자체였던 것으로 생활선인 셈이며, 동선(動禪)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좌선과 행선, 동선은 감각기관을 단속해 욕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수행이다. 승가대학에서의 운력은 생활선이며 동선인 셈이다. 노동력 제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곧 생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선은 의식주를 해결해야하는 것이다. 생활선 이외는 다 행선하고 좌선한다. 효율적인 것은 행선 좌선이지만 생활선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학인들의 근기에 맞는 운력도 중요하지만 운력이 곧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승가교육이 현 세대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명분하에 탈세속화 되지 않은 이들의 ‘자유라는 욕망’을 충족시키며 변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세속과 적당히 넘나드는 방법으로 타협을 해서도 안 된다. 왜 밖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8시간동안 일을 하면서 절에 오면 기본적인 노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일까? 혹 우리 종단이 그렇게 출가자에게 홍보하는 것은 아닐까? 각근하(脚跟下)를 쫓아서 하는 수행이 아닌 이상적 희망만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철저한 자기 버리기’에서 출가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린다면 출가자 수가 더더욱 감소할 것인가? 출가자 수가 감소할 것을 두려워해 떡물들이지도 않고 수행보다는 지식위주로 불법을 남남 거리게 해야 하는가? 출가의 본질적인 물음에 다가설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종체기용(從體起用)의 교육과정¹³⁾

각주1)에서 예시한 조계종 교육지표와 교육목표가 언제 확정되어 공표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 사찰 승가대학의 개편된 교과목은 대체로 이에 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모두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사찰 승가대학의 특성상 소화해 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 교육원에서는 각 과목별로 주교재와 부교재, 그리고 참고자료를 소개하여 교수스님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¹⁴⁾

운문사 승가대학은¹⁵⁾ 이전 강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학년을 치문·사집·사교·화엄반이라고 불렀으며 한문을 주 교재로 사용하였다.¹⁶⁾ 지금은 승가대학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1·2·3·4학년이라 불리며 34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학점제를 실시해야 하고 수행평가포도

- 13) 종체기용(從體起用)은 징관의 『화엄경소』 권 3 「광명각품」에 나오는 말로 섭용귀체(攝用歸體)와 쌍으로 쓰인다. 승가교육 개편에 『백유경』에 <머리를 끌고 가는 꼬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 운문사를 비롯한 각 사찰 승가대학의 교육과정은 모두 부처님의 교법에서 나왔듯이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편 또한 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14) 지금까지 교육원에서 각 지방 사찰 승가대학에 배포한 강의계획안은 한문불전,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응용불교, 불교사, 계율과 불교윤리, 설법과 토론, 표교방법론, 종무행정, 불교상담 등이다.
- 15) 1958년 불교 정화 이후, 대한 불교 조계종 비구니 불교 전문 강원기 개설된 이래 1970년 비구니 승가학원으로 개명되었으며 1984년 전국 비구니 강원 교직자 회의에서 4년으로 통일안이 마련되고 1987년 1월 10일 종단 방침에 의해 승가대학으로 승격되었다.
- 16) 2011까지 운문사 승가대학 교과과정

학년	과목
치문반(사미니과)	계율, 치문, 불교학 개론
사집반	서장, 선요, 도서, 절요, 선가귀감, 대총상법문설, 중국불교사, 구사론
사교반	대승기신론, 금강경, 능엄경, 원각경, 한국불교사, 유식
대교반(화엄반)	화엄경 현답, 80화엄경, 화엄학개론
외전	영어, 일본어, 염불, 요가, 꽃꽂이, 피아노, 컴퓨터, 서예 등
특강	사서, 매 철 큰스님법문, 전문분야 외래교수 초빙 등

작성해야 한다. 승가대학 교수스님들은 연수를 통해 생경한 과목을 익혔고 필요하면 외래강사를 영입하여 과목을 이수하게 하였다. 이제 지난 10여 년간 직선적으로 달려온 교육 불사는 잠시 숨고르기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지난 2018년 11월 18일 교육원장스님께서 영남권 사찰 승가대학 교수스님들과 간담회를 동화사에서 가졌다. 이에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교육원장 스님께서도 적실하게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거론되었던 부분들과 지금까지 학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나름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문불전의 개편과 한글상용화

승가교육 개편 운운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바로 한문 불전이다. 이 시대 학인들에 있어 한문은 생경하고 다가가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교육개혁 불사에서 중점을 둔 부분도 1년 내내 한문 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물음일 것이다. <교육원장 현응스님과 함께한 제7대 교육원 교육 불사 백서>의 ‘편찬에 부처’를 보면 지금 현대사회의 교육생태계의 변화와 국가교육방향에 대하여 먼저 밝혀 놓았다.¹⁷⁾ 이를 통해 교육 불사의 방향을 먼저 가늠할 수 있다. 아래는 이 승가교육개혁의 지평 아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문사 승가대학 교과목이다.

17)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편(2019) 4-5 <백서편찬에 부처>에서는 ‘현대사회의 교육생태계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수방법에서 벗어나 …… 20세기 출가자, 19세기 교육방법, 18세기 교육내용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승가교육에는 21세기가 없었습니다.’라고 현 승가교육을 진단하고 있다. 위의 진광스님이 발제한 교육지표가 설정된 밑그림이다.

학년		과목
1 학년	1학기	한문불전강독 I (치문), 계율 I, 초기불교의 이해, 세계불교사, 중국불교사, 염불, 요가
	2학기	한문불전강독(치문), 한국불교사, 대승불교개론, 인도불교사, 초기불전, 염불, 요가
2 학년	1학기	한문불전강독 II(서장), 불교상용의례 I, 불교사회복지, 선학개론, 불교영어 I (초급), 요가, 서예
	2학기	한문 불전강독 II(도서), 설법과 토론, 불교상용의례 I, 불교영어 II, 대승불전 I, 요가, 서예
3 학년	1학기	한문불전강독 III(금강경), 중무행정론, 계율 II, 대승불교개론, 선어록 I, 염불, 요가, 서예
	2학기	한문불전 강독 III(능엄경), 간화선의 이해, 대승불전 II(기신론), 정토사상, 아비달마의 이해, 염불, 서예, 요가
4 학년	1학기	한문불전강독 IV(화엄경), 대승불교실천론, 불교와 사회, 화엄사상, 염불, 요가, 서예
	2학기	한문불전강독 IV(화엄경), 불교상담, 염불, 요가, 서예

운문사 승가대학은 한문불전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최고 3일 정도이다. 이것도 각 승가대학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부여된 상황에서이다. 이제 한글화 하자는 목소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는지 한문불전 강의 시간이 축소되었고 기초교리와 응용불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강원세대에는 원전이라고 하면 한문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이제는 범어나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이다. 원전을 보기 위해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해야 한다면 한자문화권인 우리가 더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본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한문으로 기록한 우리 선조들의 불교전적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불교조계종 출가자라면 당연히 선조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분들의 체험이 우리 수행풍토와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선조들은 외면하고 부처님께서 남겨 놓으신 경전만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 경전은 금강경이다. 그러나 예컨대 사상(四相)이 산스크리트어로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한문의 의역과 음역으로 인명과 지명, 용어들을 접한 강원세대는 지금 범어나 산스크리트 그대로 사용하여 번역되어 있는 것에 곤란을 느낀다. 이에 산스크리트 본이 남아 있는 경전은 용어에 대한 원어를 주석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이고 효율적일 것이라 여겨진다. 뜻이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한문 문장은 그 문장 전체의 원전을 표기하고 번역해 주석하면 대조를 통해 정확하게 뜻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치문과 사집책의 경우 꼭 봐야할 부분을 고심하여 수업시간에 맞게 새롭게 편집할 필요가 있다.¹⁸⁾ 현재 도서의 경우나 서장의 경우 현 시대에 유용한 부분을 발췌해서 편찬하고 또한 원효나 의상, 지눌, 휴정 등 한국조사스님들의 글도 함께 편찬한다면 중국과 한국의 불교사나 사상사까지 아우를 수 있을 것이다.

승가대학에서 서당식 한문교육방식은 굳이 논자가 거론하지 않아도 참으로 수행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불사 가운데 경전의 한글화를 우선해야 한다면 다시 강조하고 싶다.

우선 한역경전과 산스크리트에 대한 표준 번역서가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경 팀이 꾸려져야 한다. 지금 한문불전은 대부분 개인 번역서에, 또 한 개인이 감수한 정도가 전부다. 동국역경원에서

18) 교육원에서 승가대학교재로 대승불전과 선어록 강독에 대한 묶음의 책이 나온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 일 것이다. 아쉬운 점은 한글 번역으로 편집되었다는 것과 선별과정에 있어 원로교수스님들의 자문을 충분히 구하지 못한 점이다. 기존 한글번역본은 전문성과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면치 못하며, 한문을 봐야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거론해 마쳤다.

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큰 오류를 낳는다. 부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개인이 번역한 것을 부처님 말씀인 것으로 따를 수 있는가? 이전 구마라집이나 현장스님이 번역할 당시는 당대 최고의 번역장이 마련되었고 불교적 해안을 갖춘 이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세분화된 기구에 의해 역경사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준하여 엄밀하게 번역되었으므로 비록 번역문이라 하더라도 그 정확성은 보장되었다.¹⁹⁾ 지금 각 승가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스님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한문을 익힌 분들이다. 이들이 모두 떠나가기 전에 역경 팀이 꾸려진다면 경전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선조들의 어록과 문집을 원저자의 수순에 미칠 수 있도록 번역해 낼 수 있을 것이다.

19) 역경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드물었고 대부분은 국가적인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행해졌다. 이러한 역경사업을 위해 역경원(譯經院) 또는 변경원(翻經院)이 설치되었다. <불조통기 佛祖統記>에 의하면 역경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세분화된 직제를 두었다고 한다.

- ① 역주(譯主) : 원전을 읽고 그 뜻을 강설하는 자로서 번역을 주재한다.
- ② 증의(證義) : 원전과 번역문을 비교하고 그 뜻이 올바른가를 판별한다.
- ③ 증문(證文) : 역주가 읽는 산스크리트 문장에 잘못이 없는가를 살핀다.
- ④ 서사(書寫) : 역주가 읽는 원문을 듣고 이를 한자로 음사(音寫)하여 기록한다.
- ⑤ 필수(筆受) : 번역문을 받아 쓴다.
- ⑥ 철문(綴文) : 의미가 잘 통하도록 문자를 엮어 문장을 구성한다.
- ⑦ 참여(參譯) : 산스크리트 문장과 한문을 대조하여 틀림이 없도록 한다.
- ⑧ 간정(揀定) : 번거로운 문장을 줄여서 글귀의 의미를 정한다.
- ⑨ 윤문(潤文) : 번역문을 윤색한다. 이외에도 번역을 시작할 때 거행하는 의식을 맡는 범패(梵唄), 번역문을 재심사하고 교열을 하는 교감(校勘), 정부의 고관으로서 최후에 교열과 검정(檢定)을 맡는 감호 등의 직책이 있었다.

또 번역의 원칙에는 도안(道安)의 ‘오실삼불이’(五失三不易)와 현장의 ‘오종불번’(五種不翻) 설이 있다.

이렇게 경전을 번역하는데 신중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 한글화 작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번역사업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세워 학인 가운데 한문 보는 데에 흥미를 느끼는 이들을 모아 한문불전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인들에게 한문불전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문을 대하면서 느끼는 답답함, 그 답답함을 해소하고 오로지 자신의 안목으로 경전을 이해하고 볼 수 있기를 바라는 원력을 갖게 해야 한다. 승가대학 학인시절에 한문을 접하게 하는 것이 그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스크리트 번역도 마찬가지이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의 한문아카데미는 이러한 요구에서 설립되었고 기본·심화 과정을 통해서 한문 번역사를 양성하고 있다. 그런데 언어, 특히 한문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여 얼마만큼의 많은 전적을 보느냐에 달려있지 4년 만에 역경사를 배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알묘(揸苗)가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철저히 불교와 한문을 아우를 수 있는 해박한 역경가를 길러내야 한다. 이후 세대는 지금 세대들의 한글화해 놓은 불전에 입각하여 재해석하고 수행할 것이다. 지금 한문을 통해 불교를 볼 수 있는 혜안을 갖춘 경험 많은 강사(講師)스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이다.

정리하면 교육원에서 추진해야 할 또 한 사업 분야는 역경 팀을 꾸리고 전폭적인 지지, 더불어 학위위주가 아닌²⁰⁾ 문리를 터득한 승가 지성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한글화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한문불전을 볼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어지는 모호한 지금상태로 몇 년 만 지나버리면 불법도 잃어버리고 뿌리도 없는, 정체성 상실된 한국불교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교육은 2학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이다. 기본 불

20) 법보신문 2016.03. 07일자를 보면 '박사스님 시대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연재를 하고 있는데 박사학위를 소임을 맡기 위한 수단이나 통과외레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출가자들의 학문의 질적 양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교리와 계율에 대한 이해, 그리고 조사어록을 통해 제반적인 것을 이해하고 경건하게 경전에 접근시켜야 할 것이다.²¹⁾

② 개론서 편찬과 계율 익히기

학인스님이 말한다. 티벳에서 온 스님의 12연기에 대한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 먼저 몇 년을 배우느냐는 질문에 어리둥절했다는 것이다. 또 분명 초기불교가 개설되어 있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묻지를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 어느 교수스님이 12연기에 대해 설명하려니 부득이 유튜브를 찾아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절대 공감이었다. 이것이 현 승가교육의 주소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알고도, 모르고도 출가한다. 기본교육기관에서 할일은 부처님이나 스님을 믿고 출가했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해야 한다. 우선 시대를 일관하고 공신력 있는, 지남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기본 교리를 담은 개론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출가자들도 기초교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재가자들은 어떠할 것인가?

교육원에서는 기본교리에 대한 교재에 대해 주교재와 부교재를 제시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저술이 대부분이고 너무나 많은 책들이 소개되고 있는데²²⁾ 이를 묶음으로 하는 종단차원의 시대를 초월한 교재가

21) 운문사에서는 지금까지의 죄업에 대한 참회와 더불어 경반에 올라갔을 때 장애 없이 경을 보게 하기 위하여, 또 경전을 대하는 진실함과 절실함, 경건함을 위해 수업과 모든 소임을 내려놓고 오로지 자비도량 참법기도를 3일간 봉행한다. 학년이 올라가는데 있어 좋은 교육프로그램인 것은 증명된 지 오래이다.

22) 승가대학 교과목 가운데 초기불교 기본강의 계획안은 『불교개론』, 『초기불교이해』, 『남·북전 아비달마의 이해』, 『초기불전강독 I』, 『초기불전강독 II』이다. 각 과목별 주 교재와 부교재를 살펴보면, 『불교개론』 주교재로는 마스터니후미오, 『불교개론』, 현암사, 2009 ; 소운스

절실하게 필요하다.

한국불교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의 장은 항상 열려있다. 이제 탁상 공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논의들을 현실에 적용시키고 개선해야 할 때이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데도,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는 것은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문제도 알았고 처방전도 내놓았다. 먹을 의지도 있다. 이제 조제해서 만들고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개론서를 편찬할 때 니까야의 해당 설법을 같이 실어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교 개론서와 니까야 번역서를 내는데 있어 각 분야의 교육아사리 스님을 포함한 각 사찰 승가대학, 동국대, 승가대 전 현직교수님들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이 승가의 화합을 위해서, 개인의 깨달음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계율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청정성이 극도로 요구되는 상황은 사미계를 받을 때와 비구계를 받을 때 외에는 계본을 거의 접하지 않는 것보다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계율이 바로 지켜져야만 부처님의 제자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출가하면서 갖게 해야 한다. 계율은 승속을 구분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결재 기간 포살에 『범망경 보살계본』을 독송한다. 대승보살계본인 『범망경 보살계본』을 독송하는 것과 더불어 비구·비구니,

님, 『하룻밤에 읽는 불교』, 랜덤하우스 중앙, 2004 ; 부처님의 생애편찬위원회, 『부처님의 생애』, 조계종 출판사, 2010의 3가지를 부교재로는 미즈노코겐, 『불교용어 기초지식』, 들꽃누리, 2008 ; 금강대불교문화연구소, 『불교의 이해』, 무수, 2006 ; 김재성, 『초기불교산책』1, 한연, 2010이, 참고자료로는 명군사야도, 최봉수 역주, 『대불전경』10권, 한연, 2010 ; 각목스님, 『디가니까야』 3권, 초기불전연구원, 2006 ; 대림스님, 『양긔따라니까야』, 초기불전연구원, 2006 ; 전재성, 『맛지마니까야』, 한국빠알리 성전협회, 2009 등 모두 총 15권이 소개되고 있다. 다른 분야의 과목도 많게는 30권이 넘는 책들을 제시해 놓고 있다.

사미·사미니 계본을 독송하는 건 어떨까? 출가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으며 어떻게 참회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망일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지범개차(持犯開遮)를 모르기 때문에 승가의, 승려의 청정성이 운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승가대학은 이미 승가의 포살과 자자, 대중공사의 갈마를 통한 화합과 더불어 의식주의 공평한 분배를 통한 승가의 평등성을 확보하고 있어 계를 익히는데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바라제목차가 깨달음에 나아가는 것임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본교리와 계율을 배우는 과정은 1학년에서 습의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③ 선방이나 호스피스 등 실참 기회 부여

승가대학을 오는 학인스님들에게는 참선수행을 하고 싶은 열망을 대부분 갖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졸업하고 바로 동국대나 승가대학에 가거나 혹은 소임을 산다. 그렇게 선택한 이들이 선원에 가 기란 쉽지 않다. 생 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 아쉽다. 조계종 출가자에게 있어 최대의 수혜는 선원이라는 최고의 수행공간과 최적의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리라.

한문불전도 접할 기회가 있어야 불전 대학원을 선택하든지 역경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든지 할 수 있듯 선원도 선택할 수 있도록 체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초선원에서는 결재기간 이외 일정기간 경학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안다. 이제 출가자 수가 감소되었고 상당부분은 기초선원을 향한다. 승가대학의 학인 수 감소로 존폐여부가 신중하게 거론되는 즈음이다.

승가대학과정에 선원에서 한철이든 한 달이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학제에 정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운문사의 경우 문수선원이 있다. 운문사승가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산철방부를 들여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선원에서 입선 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참 수행 지도자 스님을 통해 실수(實修)를 꼼꼼히 배운다면 학인들의 열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간화선 수행풍토인 조계종으로 출가하는 지금 학인들에게 보다 선호되고 있는 것이 남방불교의 선수행법이고 남방불교의 수행을 통해 조계종으로 출가한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부처님이 수행하였던 원형이라는 것과 쉽게 배우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기도 한다. 이는 곧 간화선을 어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해인사 승가대학에서는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보살도를 실현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직접 울산자재요양병원에 3주 동안 머무르며 오전에는 병동에 직접 투입되어 환우를 돌보고 오후에는 임상수업을 집중적으로 받는다고 한다.²³⁾

운문사 승가대학에서는 화엄반을 대상으로 자재병원에서 호스피스교육을 실시해왔는데 학인수와 일정 등의 문제로 2년간 멈추었다가 올해 다시 전 학인을 대상으로 5박 6일간의 호스피스 체험의 기회를 주었다. 이를 통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체험하고 무상·고·무아를 체험하게 하며 병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터득한다. 더불어 같이 공부하는 동학이 나와 같은 마음상태임을 알고 서로 나누고 보듬어 주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경주 아동복지시설인 대자원과 결연을 맺어 어린이들에게 은사가 되어주어 4년 동안 관심과 보살핌을 주고 봉사를 한다. 이를 통해

23) 보일(2019), 5-21

자비심과 연민심을 키우게 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교를 실천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교육은 한해 두해만의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경상 밖의 수행은 자질향상과 포교, 복지에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운문사 승가대학은 4년 생활 중에서 한번 주어지는 차례법문이 있다. 법문 주제는 자유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오고 있다.²⁴⁾ 여법하게 마련된 법상에 올라가 학장스님을 비롯한 행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살림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법문의 내용, 말하는 태도, 법상에 오르는 모양, 가사장삼을 수한 모습 등을 꼼꼼히 살펴 학장스님이 점수를 매기고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법문시간을 마무리 짓는다. 듣는 이들은 반조의 기회를 갖게 된다. 법문 원고를 작성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인친의 스승으로 가져야할 전체적인 것을 배우는 가장 여법한 시간이다.²⁵⁾

4. 마치며

현 운문사 승가대학의 생활과 교과과정, 나아가 종단의 교육 불사는 근본으로부터 시작된 전통의 재해석이자 확대라고 할 수 있다.

24) 운문사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은 197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논자가 학인이었던 1995년 논자 또한 법문을 하였고 당시 학장이었던 현 명성 회주스님이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학인 관련 노트에 논자 등 당시의 점수가 매겨져 있다.

25) 위의 교과과정을 간단히 도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학년	교과목
1학년	불교개론, 계율, 염불
2학년	선어록(한국 중국), 염불
3학년	경전류(사교), 염불
4학년	화엄경, 經床 밖으로(선수행, 호스피스교육등)

출가의 이유는 다양하다. 그러나 분명 바깥에서 분명 만족하지 못한 삶이었기에, 일과가 가져다주는 즐거움보다는 무엇인가 괴로웠기 때문에, 험뎅거림과 채워지지 않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한 절대적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승가는 그러한 문제를 가진 이들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한국불교의 교육과 수행법등은 모두 이곳을 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막 출가한 이들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절집의 수행방법을 익혀야 하고 물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절집이 세속에 물들어 있는 욕망의 편리와 요구에 맞추어 세속화 되어야하는지, 갓 출가한 자들이 계승 유지된 승가의 수행풍토에 적응하여 속티를 벗고 승가의 일원인 수행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는 물을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현 출가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온고(溫故)가 없는 지신(知新), 근원 없는 미래의 추구는 여름 한 철 소나기에 지나지 않는다.

역천겁이불고(歷千劫而不古)요, 금만세이장금(亘萬歲而長今)인 진리를 교육 불사에서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편(2019), 『교육원장 현응스님과 함께한 제7대 교육원 교육불사 백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 보일(2019), 「해인사 승가대학 교육프로그램의 현재와 향후과제」, 『불교학 연구회 여름워크숍자료집』, 불교학 연구회.
- 유승무(2016), 「저출가 시대 승가의 위상과 역할 변화」, 『저출가시대와 한국불교의 미래』, 제66차 포교정책 세미나 자료집.
- 은광(2019), 「운문사 승가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회고와 전망」, 『불교학 연구회 여름워크숍자료집』, 불교학 연구회.
- 장익(2010), 「현대 불교 출가자 도제교육의 과제」, 『종교 교육학연구』, 32, 한국종교교육학회.
- 진광(2018),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조계종 승가교육 개선방안」,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 법보신문 2016.03. 07일자
- 대한불교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

■ Abstract

The Improvement of Buddhist Priesthood Education

– With a focus on unmun Buddhist Seminary –

Kwon Dong–Soon(Ven. Wonbub)

A Buddhist seminary today is a basic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has inherited the tradition of Gangwon education that began in Joseon. Based on discussions about the reduction of those who enter the Buddhist priesthood, the image of Buddhist priesthood in modern times, the image of those who enter the Buddhist priesthood, and Buddhist service for education as an outcome,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improvement measures with a focus on unmun Buddhist Seminary. The Seminary has changed its asceticism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reduction and aging of people entering the Buddhist priesthood, the decrease of Woonryeok following social and cultural changes, and the learning of rituals based on a list of voluntary manners. They represent the re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 that began at the root, changes to the asceticism environment based on expansion to review the old and learn the new, and a future direction to follow. The Seminary's old education system was also replaced with a credit system in which the students were required to complete 34 required and elective courses at the educational institution throughout the curriculum. After putting together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the investigator put an emphasis on a couple of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the management of a specialized and segmented adversity team,

full-scope supports for the team, and continuous production of intellectual Buddhist priests to master humanities and sciences instead of focusing on degrees. In addition, the study proposed a few ways to reach realization through clean Buddhist priesthood such as publishing an introduction to Buddhism and reciting Gyebons for novice and Buddhist nuns in addition to those of Bodhisattva Brahmajala Sutra. Furthermore, the study proposed more improvement measures for Buddhist priesthood education including opportunities for actual Chamgu at Seonbang during the study and the curriculum of Jongchegiyong to incorporate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such as hospice into the school system.

Keywords ● Buddhist service for educational reform, unmun Buddhist Seminary, review the old and learn the new, Jongchegiyong, list of manners

■ 논문투고일 : 2020. 5. 14 ■ 심사완료일 : 2020. 5. 31 ■ 게재확정일 : 2020. 6. 2